

## 2. 主要 産業 懸案

### (1) 韓美 自動車 通商 摩擦 조짐

- (美國側 主張) 최근 미국측은 NTE 보고서와 한미재계회의에서 자동차 수입 관세 인하, 배기량에서 연료 소비 기준으로의 과세 기준 전환, 국가 인증 제도에서 자기 인증 제도로의 전환, 자동차 할부 금융 개방을 위한 계획안 제시 등을 강도 높게 요구하고 있음
- (對應 論理) 단기적으로는 최근 미국측이 요구하고 있는 항목의 비논리성을 부각시켜 우선 대상 협상국 지정을 피해야 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통상 협상과 분쟁 해결 능력의 배양이 경쟁력 강화 노력과 더불어 절실함

#### ■ 最近 美國側 主張

- 미국측은 12차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와 한미 재계회의에서 국내 자동차 시장 개방 확대를 거듭 요구
- 97년 미국 통상대표부(USTR)의 12차 국별무역장벽 보고서(NTE)에 따르면, 한미간 통상 마찰 재개 가능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 미국측은 한국 자동차 시장이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이라고 간주하고 있음
    - 한국은 일본, EU에 이어 세 번째 자동차 수출국이나 96년 수입차의 한국내 시장 점유율은 0.62%임
  - 또한 97년 6월초 워싱턴에서 개최된 한미재계회의에서도 미국측은 한국 자동차 시장의 추가 개방을 강도 높게 요구함
    - 한미재계회의에서 미국측이 요구한 내용은 NTE 보고서와 유사함
    - 자동차 수입 관세 인하, 배기량에서 연료 소비 기준으로의 과세 기준 전환, 국가 인증 제도에서 자기 인증 제도로의 전환, 자동차 할부금융 개방을 위한 계획안 제시 등임
    - 특히 이번 회의에서 앤드루 카드 미국자동차협회장은 한국의 공급 능력 증대에 우려감을 나타내고 있음
    - 이는 공급량 증대는 수출 확대 전략으로 이어져 대미 진출이 본격화될 것을 우려하는 것임

한미 자동차 통상 마찰의 주요 내용	
낮은 수입차 비중	- 내수 판매중 점유율 1% 이하
자동차 세제	- 현재 8%의 관세를 추가 인하
검사·인증 절차의 어려움	- 검사를 위한 서류 작업에 모델당 500 개 이상 서류 필요 - 국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안전 및 배기 가스 기준을 도입하려 한다고 비판
금융 접근 제한	- 할부 금융 개방 계획안 제시
시장 개방	- 확대 지속 요구

자료 : 각종 보도 자료 종합

■ 기본적인 對應 論理

단기적 대응으로 미국측 요구의 비논리성을 부각

- 단기적으로는 미국측 요구의 비논리성을 부각시켜야 할 것임
- 낮은 수입차 비중
  - 96년 수입차 판매(공식 수입 업체)는 10,315 대로 전체 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6% 정도임
  - 수입차 판매에서 비공식 수입 업체의 비중이 공식 수입 업체의 약 30~40%를 차지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1% 정도로 추정됨
  - 그리고 96년 3,000cc 이상급 내수 시장에서의 수입차 점유율은 2,208 대로 13.2%를 차지하고 있음
- 관세 인하 문제
  - 승용차 관세율은 84년 150%에서 현재 8%로 대폭 낮아졌음
  - 8%의 관세는 무관세인 일본과 2.5%인 미국보다는 높지만 EU 10%, 캐나다 9.2% 등 국제 수준에 비해 낮음
  - 또한 대형차에 대한 누진 과세는 소득 재분배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며, 내국 세제에 대한 협상 요구는 내정 간섭 수준임
- 검사·인증 절차의 어려움
  - 검사 절차의 경우 수입자동차 생산 국가의 검사 기준이 한국의 검사 기준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일 경우, 자료 제출시 당해 검사가 면제되고 있음
  - 이처럼 한국 정부는 절차의 간소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시장 개방 확대 요구

- 미국측의 시장 개방 확대 요구는 사실상 점유율 확대로 이해되나, 이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 마케팅 전략과 관련된 문제임
- 한국 자동차 업체의 미국내 시장 점유율도 96년 0.9%에 그치고 있음
- 96년 미국차의 내수 판매는 3,894 대로 전년 대비 51% 증가하였는데, 이는 미국 업체들이 2,000만 원대의 스트라투스나 니온 등 저가격차에 의한 시장 확대 전략이 성공을 거두었기 때문임

- 금융 접근 제한

- 이미 97년 1월부터 외국 업체들의 할부 금융업에 대한 제한을 완전히 철폐하였음
- 외국 할부 금융 업체의 국내 진출시, 외화 자금의 직접 조달은 국내외 금리 격차가 크기 때문에 국내 산업 보호 차원과 동등한 경쟁 조건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허용하기는 어려움

중장기적으로  
는 정부의 통  
상 협상 능력  
배양과 업계의  
경쟁력 강화  
노력의 배가가  
필요

○ 중장기적으로 통상 협상과 분쟁 해결 능력의 배양이 경쟁력 강화 노력과 더불어 절실함

- 통상 협상 능력 배양을 통해 쌍무 협상 중심에서 다자간 협상으로 유도할 수 있어야 함
- WTO 체제에 맞는 세제 개편 추진
  - 논란 여지가 있는 세제의 개편을 통해 통상 마찰 요인을 사전에 제거해야 할 것임
- 시장 개방에 대비한 경쟁력 강화
  - 한국 경제의 위상 강화로 시장 개방 확대는 피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쟁력 강화 노력을 배가해야 함
- 업계 차원에서의 공동 대응이 필요함
  - 미국의 경우, GM, Ford, Chrysler 등 빅3가 주로 통상 문제를 제기하고 있음
  - 국내 업체들은 협회를 중심으로 공동 대응함으로써 협상 능력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함

(윤 창 호)